

미국 금리 인상시 국내 자동차 큰 타격

한국경제연구원, 1포인트 오를때 2억 4500만 달러 감소 예상 통신·방송장비 1.11%, 영상·음향기기 0.71% 감소 전망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7개 산업의 총 수출량을 토대로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이 국내 주요 제조업의 수출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용 엔진·부품산업 수출량은 감소하고 반도체·전자 표시장치 등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소득효과로 총 수출량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3대 산업은 통신·방송장비(-1.11%), 자동차용 엔진·부품(-1.09%), 영상·음향기기(-0.71%)였다. 2015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미국 기준금리 1% 포인트 인상되면 1차 연도에 자동차용 엔진·부품품 수출액은 2억4500만 달러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고 이어 자동차 2억800만 달러, 기타 제조업 제품 4300만 달러, 섬유사·직물 2100만 달러, 특수 목적용 기계·장비 900만 달러, 가죽제품 900만 달러, 영상·음향기기 400만 달러 순이었다. 반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격효과로 총 수출량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3대

산업은 기초 화학제품(0.41%), 제차 금속제품(0.39%), 석유제품(0.36%)이었다. 작년 수출액 기준, 미국 기준금리가 1% 포인트 인상되면 1차 연도에 반도체·전자 표시장치 산업이 1억2700만 달러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또 석유제품 1억1900만 달러, 기초 화학제품 8700만 달러, 합성수지·합성고무 6000만 달러, 펄프·종이 제품 17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경수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소득효과는 충격 발생 직후 1년 차에 주로 나타나지만, 가격효과는 시차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나타나 소득효과를 압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산업별로 달라 국내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확정적이진 않지만 자동차와 자동차용 엔진·부품품 수출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선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 교수는 “이들 산업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산업의 수출 감소는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



인조이 모바일 코리아 서비스 개시 SK텔레콤은 한국관광공사·삼성전자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최신 이동통신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조이 모바일 코리아(Enjoy Mobile Korea)' 서비스를 23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동방지협정(TTP) 등 자유무역을 통해 해외시장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미국 기준금리 상승이 산업별 대미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총수출에 미치는 효과보다 크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산업의 숫자도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총 수출량은 주로 조립가공산업이 소득효과에 영향을 받아

지만 대미수출은 대부분 기초소재산업이 소득효과에 영향을 받아 수출량이 감소된다는 설명이다. 해당 기초소재산업은 기초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광물제품·제1차 금속제품이다. 그 중에서도 비금속광물제품은 1~5차 연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수출량 감소가 지속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인진수 기자

금감원 사칭 팝업창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당국이 온라인상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팝업창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3월19일까지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감독 당국을 사칭한 팝업창과 관련해 28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처 운영기준에 근거해 전화 또는 민원을 기준으로 동일한 사안이 일주일에 30건 접수되면 ‘주의’, 100건 이상 접수되면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사칭 팝업창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화면에 나타나며, 보안 관련 인증 절차가 진행된다는 식의 문구가 적혀있다. 팝업창을 누를 경우 금융범죄의 경로로 이동하는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로 연결되며, 보안 승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거래은행명·계좌번호·보안카드번호·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안내한다. 이는 팝업창이 이메일 등을 이용해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싣고,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는 피싱(Phishing) 범죄의 한 방식이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는 보안 인증 절차를 위해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의 경우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인진수 기자

한국거래소, 주식수 현저히 적을 경우 매매 정지

‘제2의 코데크잡바인’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시장관리 방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유동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과 관련해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 시행세칙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갑자 등으로 인한 주식수 감소로 유동가능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되거나 주식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최소 유동주식비율은 코스닥의 경우 총발행주식수의 2%(코스피:1%), 최소 유동주식수는 10만주로 제한된다.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되면 유동주식비율은 총발행주식수의 5%(코스피:3%), 최소 유동주식수는 30만주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동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 현재는 추가상승률, 거래회전을, 주가변동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개 이상 충족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진수 기자

BMW, 안성에 대규모 부품물류센터 조성

BMW그룹이 경기 안성에 추구장 30개 규모의 부품물류센터를 조성한다. BMW그룹코리아는 지난 22일 경기도 안성시 새 BMW 부품물류센터(RDC) 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새 부품물류센터는 BMW와 미니, 모토라드 서비스센터에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세우는 것으로 현재 이전 중인 부품물류센터의 세 배 규모다. 안성시 양성면 조일리 일대 약 21만500㎡(6만4000평) 대지에 조성되며 9만여종의 부품을 보관할 수 있는 1차 물류센터가 연면적 5만7163㎡(1만7300평) 규모로 내년 2월에 완공된다. 2차 물류센터는 연면적 3만2000㎡(9680평) 규모로 향후 10년 이내 완료될 예정이다. /인진수 기자

‘내집 연금 3종세트’ 도입

노년층 대상 ‘주택연금 전환 상품’ 등

내집의 자산가치를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내달 25일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내집연금 3종 세트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등에서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전환 상품’과 장년층을 겨냥한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 취약계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을 내놓을 계획이다. 주택연금 전환 상품은 60대 장년 7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원리금과 이자 상환 부담 없이 정기적인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40~50대

층을 대상으로는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사전예약 상품을 출시해 우대금리를 제공받다가 바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산정 이자율을 낮춘 우대형 주택연금이 제공된다. 전문가들은 새로 도입될 내집연금 3종 세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현주 신한은행 부행장은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를 통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정책방향에 적극 공감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은퇴 후 소득 감소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많이 목격했는데 내집연금 활성화는 고령자의 대출상환 부담 감소와 전반적인 가계부채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인진수 기자

2월 수출금액지수 6년만에 ‘최저’ 수준

수입금액지수도 크게 하락

지난달 수출금액지수가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6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금액지수는 94.64로 전년동월대비 8.0%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0년 2월(81.28)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한 121.65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석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수출금액이 물량에 가격을 곱해 산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금액지수 감소는 국제유가와 제철강가 하락 등 가격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품목별로는 석탄 및 석유제품(28%), 정밀기기(12%)의 물량지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금역지수에서 석탄 및 석유제품(-26.2%), 제1차금속제품(-14%), 전기 및 전자기기(-10.6%)의 하락 폭이 컸다. 수입금액지수도 크게 하락했다. 지난달 수입금액지수는 82.18로 전년동월대비 14.8% 떨어져 지난 2009년 8월(77.76) 이후

6년6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품목별로는 광산품(-33.5%), 석탄 및 석유제품(-28.4%), 제1차금속제품(-25.1%)의 하락이 컸다. 다만 수입물량지수는 109.37로 전년동기 대비 0.2% 증가했다. 농림수산물(14.1%)과 광산품(9.0%), 석탄 및 석유제품(6.3%)에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국제유가 등이 하락하면서 수출가격(-12.2%)보다 수입가격(-14.9%)이 더 많이 하락해 교역조건지수는 18개월째 개선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03.54(2010=100기준)로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했다. 지난 2014년 9월 0.6% 상승한 뒤 18개월 연속 개선된 것으로 2010년 3월(103.92) 이후 5년11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수출상품 한 단위 가격(달러 기준)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이전보다 늘었다는 얘기다. 수출로 벌어들인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과 순상품교역지수가 모두 상승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8.1% 상승한 125.96을 나타냈다. /인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이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